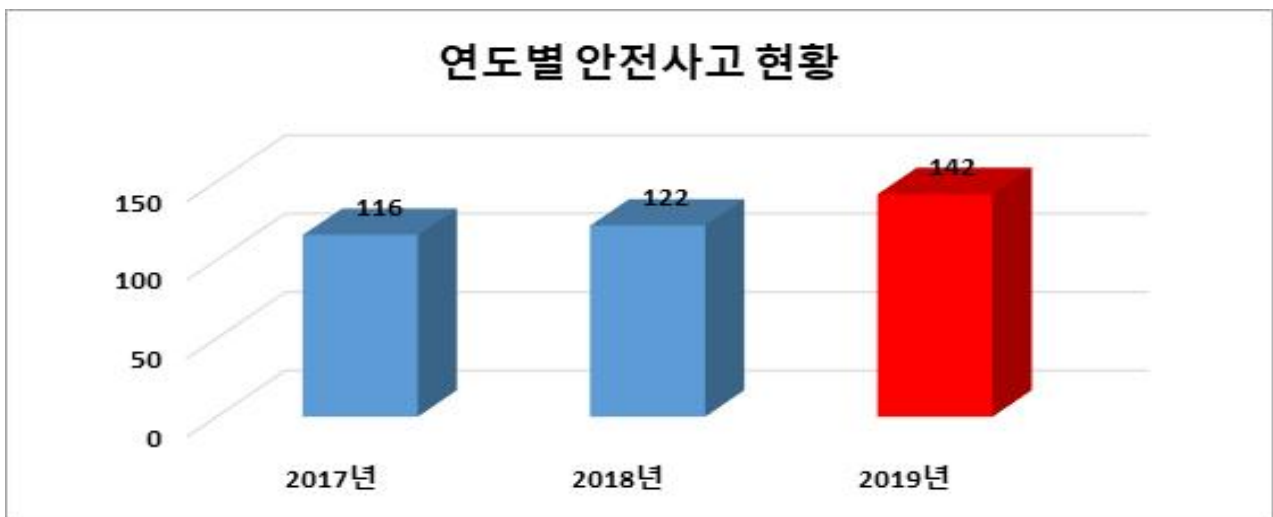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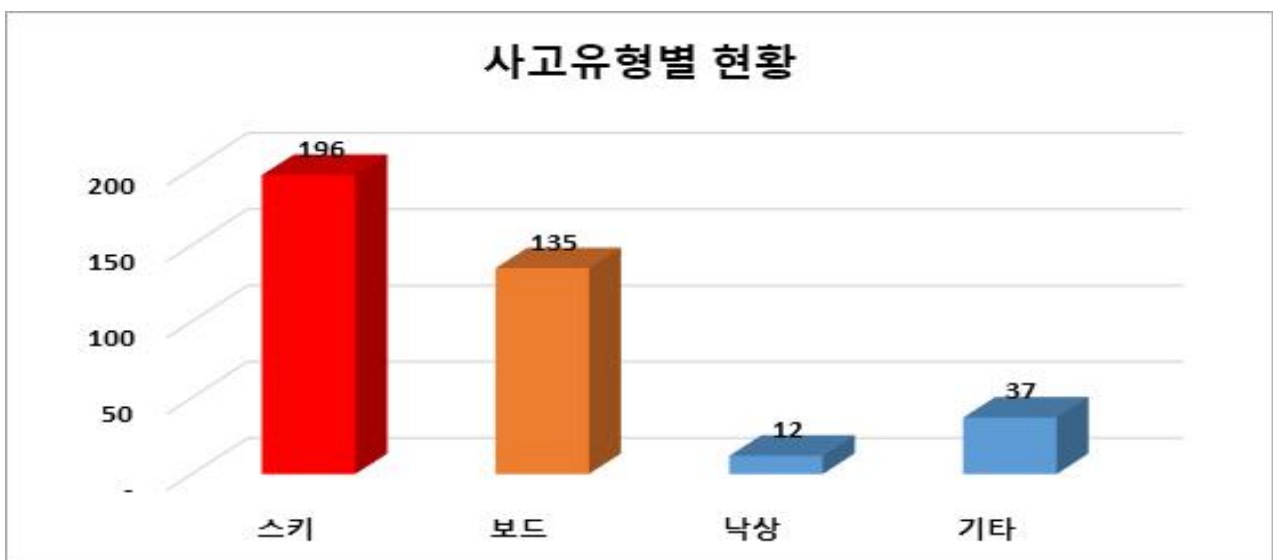
12월 주요 재난 안전사고 예보

= 겨울철 스키장 안전사고 주의보 =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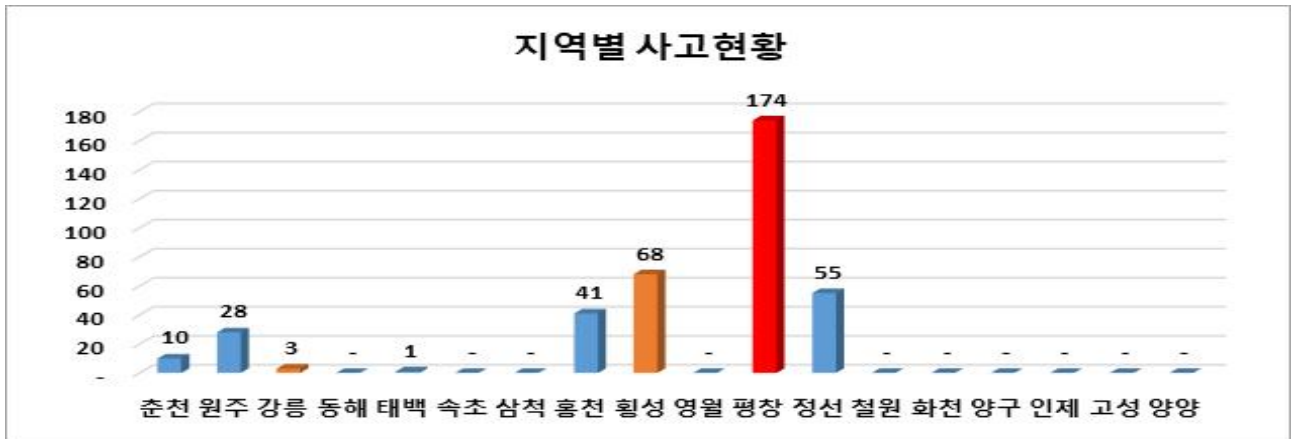
- 12월 본격적인 겨울철이 시작되면서 스키장 안전사고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.
- 지난 3년('17~'19년)간 1·2월 및 12월 중 도내 스키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380건으로 나타났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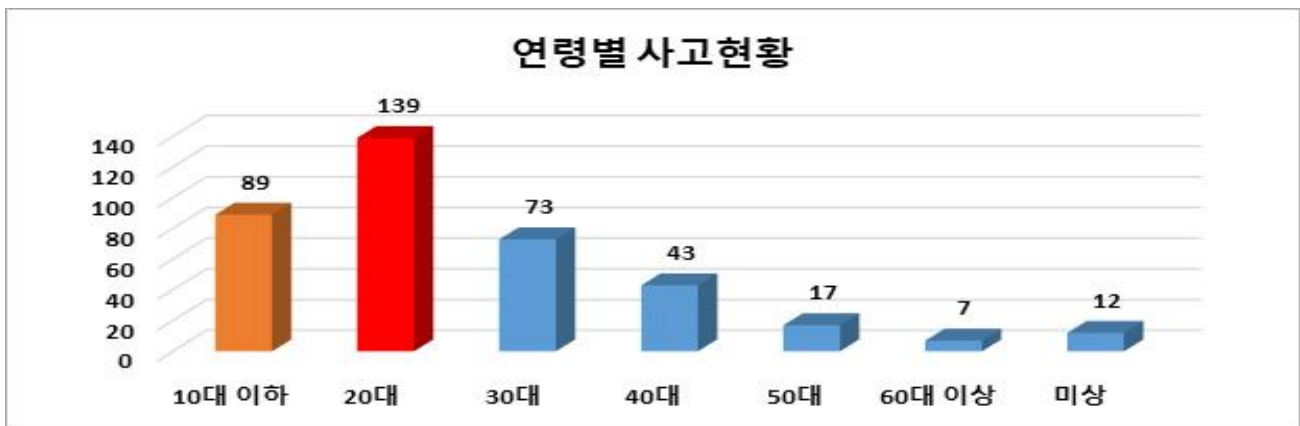
- 스키장에서의 사고유형을 보면 총 380건 중 스키를 타다가 부상을 입는 경우가 52%(196건)로 가장 많았으며, 다음은 스노보드 36%(135건), 낙상 12건, 기타 37건으로 나타났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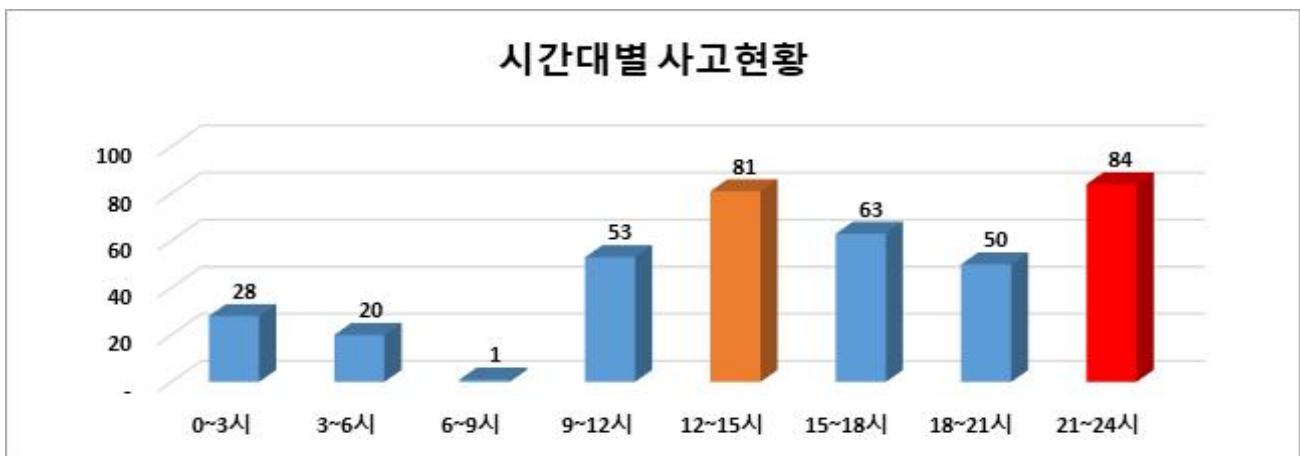
- 스키장 안전사고 지역별로 보면 평창지역 174건, 횡성 68건, 정선 55건, 홍천 41건, 원주 28건, 춘천 10건, 강릉 3건, 태백 1건으로 나타났다.



- 스키장 안전사고자의 연령은 20대가 37%(139건)로 가장 많고, 10대 이하 23%(89건), 30대 19%(73건), 40대 4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.



- 스키장 안전사고 발생시간대별로 보면 21~14시가 22%(84건)로 가장 많이 발생하고, 12~15시 21%(81건), 15~18시 17%(63건), 9~12시 14%(53건), 18~21시 13%(50건), 0~3시 7%(28건)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.



□ 리프트 이용방법**○ 승 차**

- 초심자는 부담 없이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한다.
- 앞 사람이 승차를 끝낸 후 직원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위치에서 대기한다.
- 리프트를 탈 때는 한손을 뒤로 내밀어 리프트를 확인 후 깊게 앉는다.
- 폴을 옆으로 해서 무릎에 놓으며, 2~4인승 리프트의 경우에는 옆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폴을 손으로 잡는다.
- 리프트 승차 후, 이동 중에는 의자를 흔들거나 스키를 버둥거리는 행위를 삼가 한다.
- 1인승 리프트 이용 시 옆 방향으로 앉아 승차하는 경우, 리프트 기둥에 충돌할 위험이 있으니 바른 자세로 탑승한다.

○ 내리기

- 하차장에 가까워지면 안전표지판의 신호에 따라 안전 바를 올리고 스키 앞쪽을 올리면서 내릴 준비를 한다.
- 하차 위치에서 미끄러져 내려갈 수 있도록 경사가 조성되어 있으므로 스키 앞쪽을 들고 침착하게 내려 직진한다.
- 2~4인승 리프트에서 하차하는 경우에는 옆 사람과 부딪히지 않도록 주의

□ 슬로프 활주 중 주의사항

- 자기의 기량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자기에 맞는 코스를 선택하며 무리하게 상급 코스를 이용하지 않는다.
- 좁은 코스에서 메인 코스로 합류할 때에는 안전 확인을 위해 일단 정지
- 넘어지면 신속히 일어선 후 슬로프 가장자리로 이동, 충돌사고 발생 방지
- 바인딩이 풀리면 코스의 가장자리로 이동 후 스키를 다시 착용한다.
- 활주 중에 쉴 때는 코스의 가장자리를 이용하다.
- 슬로프 표식의 지시사항이나 패트롤의 지시에 잘 따른다.
- 항상 다른 스키어들의 안전을 생각하면서 탄다.

□ 스키장 안전수칙

- 준비운동은 반드시 한다.
- 바인딩의 조임 강도는 자신에게 알맞게 조정한다.
- 리프트 탑승 중 심한 몸놀림은 탈선, 추락의 위험이 있으니 삼가고, 정지 시에는 안내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.
- 직활강이나 과속, 난폭한 이용은 삼가고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는 소리 치거나 미리 넘어져 충돌을 피한다.
- 코스 중앙에서의 급정지, 휴식은 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코스 가장 자리를 이용한다.
- 음주 후 리프트 탑승 및 스키·보드 타기는 절대 금한다.
- 한번만 더 타고 그만두고자 할 때, 그때 바로 그만둔다. 이것이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.
- 안전모(헬멧)를 착용하여 스스로 안전을 지킨다.

□ 스키장 안전사고 예방법

- 본인의 사고 시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스키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이용한다.
- 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슬로프에 진입하지 않는다.
- 스키장의 안전관련 방송을 수시로 청취하여 실행한다.
- 스키장의 질서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른다.